

# “월 15만원씩”...신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2026-2027년 총 1천446억 투입

햇빛연금·바람연금 연계 높이 평가

지역경제 활성화·공동체 복원 기대

신안군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21일 신안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 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안을 비롯한 전국 7개 군 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 다.

이번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3천4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매월 일정 기본소득을 지역사 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 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 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조례제정 여부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 가능성에 주안점을 뒀다.

신안군은 민선 7기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재 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인 햇빛연금과 바람 연금을 연계해 신안형 기본소득 모델을 사업계 획으로 제시했다.

군은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독특한 순환경제 생태계를 만들려는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으로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신안군의회에서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부담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신안군 전체가 일치된 의지로 공모에 참여했

던 것도 사업 선정에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안형 기본소득 사업모델은 내년부터 2년간 월평균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포인트를 전 군 민에게 카드로 교부해서 군민이 생활서비스 소 비에 편히 사용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 다.

2년간 총 1천446억원 (국비 579억원·도비 260억 원·군비 607억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향후 재생에너지 개발이익금과 연계해서 군비 를 절약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탄탄한 재 원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그동안 군이 추

진해 온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가 공인받 은 것 같다”며 “창군 이래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 가장 넓은 범위의 사업인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군민들의 삶이 한결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향후 정부 예산반영 여부와 부 처 협의, 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친 이후 사업의 구체적인 윤곽을 제시하되 지급대상자 는 사업 개시일인 내년 1월1일부터 30일 전에 주 소지를 둔 주민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신안=양훈 기자



청와대 총괄조리팀장을 지낸 천상현 셰프가 최근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내에 중식당 ‘영암멋집’을 개점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 대통령 요리사 천상현, 고향에 ‘영암멋집’ 개점

왕인박사유적지 내 중식당

미식 관광 새 전환점 기대

청와대 총괄조리팀장을 지낸 천상현 셰프가 20일 고향인 영암군 군서면에 중식당 ‘천상현의 천상 영암멋집’을 열었다.

21일 영암군에 따르면 삼호읍 출신인 천 셰프 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김대중·노무현·이명 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의 식탁을 책임진 청 와대 총괄조리팀장으로, 각국 정상 의전 만찬을 총괄한 대한민국 대표 요리사다.

퇴임 후 서울 양재동과 경기 가평에 ‘천상현 의 천상’을 개점하며 외식업체에 새로운 바람

을 불러일으켰다.

이번에 문을 연 ‘영암멋집’은 천 셰프가 고향 사랑과 지역 발전의 뜻을 담아 선보인 세 번째 음식점으로, 영암군의 ‘관광거점 특화음식점 육성사업’에 선정돼 조성됐다.

위치는 왕인박사유적지 내로, 월출산과 상대 포역사공원 등 지역 대표 관광자원과 대통령 요 리사의 미식 콘텐츠가 결합된 ‘영암형 미식 관 광 브랜드’로 주목받고 있다.

천 셰프는 영암 무화과·장어·고구마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고품격 중식 메뉴를 선보이며, 맛과 품격을 동시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매장 한쪽에는 대통령 요리사 시절 사용 한 국가 의전 소품을 전시한 ‘청와대 추억 공간’

이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와 이야 기거리를 제공한다.

천 셰프는 오는 29일 ‘식품의식산업 발전 유 공 정부포상’ 행사에서 대통령 포장을 받을 예 정이다.

영암군은 이번 정부포상이 영암멋집 개점과 시너지를 내며 더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승회 영암군수는 “대통령의 요리사가 고향 에 돌아와 특화음식점을 개점한 일은 영암 관광 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천 셰프의 맛과 멋이 지역 특산물과 명소와 어우러져 ‘영 암형 미식 관광’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 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완도군이 추진 중인 ‘치유의 섬 완도’ 프로젝트의 거점 중 하나인 장보고 기념관 전경.

〈완도군 제공〉

## 완도군 국내 유일 ‘치유의 섬’ 조성 본격화

국토부 130억원 공모사업 선정돼

권역별 해양·산림·예술 공간 구축

완도군이 국내 유일의 ‘치유의 섬 완도’ 프로 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21일 완도군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높 아진 웰빙과 치유 여행 수요에 맞춰 청정 자연 과 바다, 숲을 활용한 해양·산림치유 중심의 관 광지로 도약하고 있다.

‘치유의 섬 완도’는 섬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 치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양·산림·

예술·경관·문학·역사 등 권역별로 특화된 치유 공간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완도읍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난대림을 기반 으로 한 산림치유단지, 정동리 구계동의 소리 치유 공간, 해변공원 일원의 야간 빛 치유공원이 조성 중이다.

약산면은 해안치유의 숲과 치유 정원을 중심 으로 한 산림치유 거점으로, 청산도는 범바위 명상 공간의 기(氣) 치유와 11개 슬로길을 활용 한 경관 치유 섬으로 조성되고 있다.

노화·보길 권역은 예술·문학 치유의 섬으로 거듭난다. 완도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130억원

규모의 민관 상생 투자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돼 섬 미술관, 예술가옥, 섬 예술제 개최 등 ‘치유의 예술섬’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윤선도 문학 치유공간, 마음치유센터, 예작도 관광 명소화 사업도 병행한다.

완도읍과 고금면에서는 장보고 대사와 이순 신 장군의 해양사, 소안도에서는 항일운동의 역 사를 주제로 한 ‘역사 치유’ 공간을 조성한다. 또 한 읍·면별 대표 음식 개발을 통해 관광객에게 ‘미식 치유’ 경험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섬의 비교우위 자원을 치유와 연계해 완도 전역을 하나의 치유의 섬으 로 만들겠다”며 “국민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대한민국 대표 치유 모델로 완도를 발전시 키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 ‘대한민국 국향대전’ 입장권 사전예매 10% 할인

함평군은 21일 “오는 24일 개막하는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앞두고 입장권 사전예매 10 %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티켓링크와 네이버에서 ‘국향 대전’을 검색해 사전예매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함평엑스포공원 내 (재)함평축 제관광재단에서도 현장 예매가 가능하다.

사전예매 입장권 가격은 ▲어른 6천300원 ▲ 청소년 4천500원 ▲어린이·노인·유치원생 2천7

00원이며 20인 이상 단체는 추가 10% 할인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예매 인증을 완료하면 ‘함평사 랑상품권 증정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입장권 구매자에게는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어른 2천원·청소년 1천원 상당)이 제공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사 입장권 소지자는 함평자연생 태공원과 양서·과충류생태공원 입장료 50% 할 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함평=김연수 기자

## ‘강진 반값여행’ 1천500팀에 특별 이벤트 연다

최대 20만원 환급...선착순 모집

강진만 갈대축제장 등 필수 방문

가을 정취가 무르익은 10월, 황금빛 갈대가 일렁이는 반값여행 1번지 강진이 다시 한 번 전 국 관광객을 설레게 한다.

강진군은 21일 “제11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 제 기간에 맞춰 선착순 1천500팀을 대상으로 ‘가 을에 떠나는 강진 반값여행 특별 이벤트’를 진 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이벤트는 사전신청 선착순 1천500 팀의 관광객에게 강진에서 여행하고 소비한 비 용의 50%를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원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인 참여자는 최대 10만원, 2인 이상 팀 단위 참여자는 최대 2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은 21일부터 강진 반값여행 공식 홈 페이지(gangjintour.com)에서 가능하며, 강진



외 지역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 정산신청을 해야 하며 참여자는 가우도 일대 또는 강진만 춤추는 갈대 축제장(강진만 생태공원)을 포함한 관광지 2곳 이상 방문 사진과 강진 관내에서 사용한 영수증 을 제출해야 한다. 여행기간은 축제기간과 동일 한 10월25일~11월2일까지이며, 정산신청은 10월 25일~11월9일까지 가능하다. /강진=정영록 기자

## 해남군, 행안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장관 기관표창도 수상

해남군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민행복 민원실’ 재인증을 받으며, 군민이 체감하는 친절 행정으로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재인증과 함께 해남군은 행정안전부 장 관 기관표창도 수상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민원인이 보다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실 공간, 직원 응대 태도, 민원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다. 해남군은 2 022년 첫 인증에 이어 올해 재인증을 획득했다.

군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군민이 따뜻한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신thought게 개선하 고,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 의시설을 확대해 ‘군민이 주인공인 민원실’을 만들어 왔다.

또한 민원인을 먼저 배려하는 친절 응대와 신 속한 민원처리, 감정노동으로 지친 직원들을 위 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모두가 행복한 민원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재인증은 군민 중심 의 행정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친절하고 믿음 이 가는 민원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 목포시립도서관,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 초청 특별강연

‘AI 시대의 미래’ 주제 내달 6일 오후 2시

목포시립도서관은 21일 “다음 달 6일 오후 2시 급속히 확산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 강연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에는 ‘알쓸신잡’, ‘유 퀴즈 온 더 블 릿’ 등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잘 알려진 뇌과학 자 장동선 박사(공급한뇌연구소 대표·사진)가 초청된다.

장 박사는 ‘뇌과학자가 바라보는 AI 시대의 미래’를 주제로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의 본질적



차이, 그리고 AI 시대에 필요 한 사고방식과 학습 방향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풀어낼 예 정이다. 강연은 목포시 통합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지역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특강은 빠르게 변화 하는 AI 시대 속에서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의 차이를 이해하고, 기술 발전을 인간 중심의 시 각으로 바라보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